



챔스사나이 지성, 첼시 꺾어주마

7일 새벽 맨유-첼시 챔스리그 8강 격돌 컨디션 최상, 강팀 킬러 면모 보여 줄 듯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라이벌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첼시가 2010-201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격돌한다.

박지성(30)의 소속팀인 맨유는 오는 7일 오전 3시45분(이하 한국시간) 첼시의 홈 구장인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브리지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치른다.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구단인 맨유와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맞붙는 것은 2007-2008시즌 결승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두 팀은 1-1 무승부를 이룬 뒤 승부차기 대결을 펼쳤고, 맨유가 골키퍼 판데르사르의 선방과 첼시 주장 존 테리의 실축으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주전 선수들의 풀부상에 시달리던 맨유는 최근 박지성의 복귀로 숨통이 트였다. 아시아권 때 한국 대표팀 차출과 햄스트링(허벅지 뒤쪽 근육) 부상으로 지난해 12월27일 선덜랜드전 이후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박지성은 97일 만인 2일 웨스트햄과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64분 동안 뛰며 무난히 복귀전을 치렀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빠른 움직임과 넓은 활동범위로 국은일을 도맡으며 3개월여의 공백을 씻어냈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데다 큰 경기에서 강한 집중력을 발휘해온 박지성은 첼시와의 8강전에도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역시 부상에 회복해 최근 복귀한 안토니오 발렌시아와 '차차리토'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의 상승세도 맨유의 '믿는 구석'이다.

첼시는 3년 전의 승부차기 '악몽'을 씻기 위해서라도 맨유를 상대로 '홀 볼패'의 신화를 이어가겠다고 버리고 있다.

주장 테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기겠다"고 설욕전을 다짐했고 카를로 안첼로티 첼시 감독도 "3년 전 패배가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맨유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라며 기선 제압을 선언했다.

한편, 같은 시각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사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누 캄프 경기장에서 1차전을 치른다. 하루 앞서 6일 새벽에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가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인터 밀란(이탈리아)과 샬케 04(독일)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주세페 메아차에서 각각 1차전 대결을 펼친다.

◇2010-2011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6일 오전 3시45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 인터 밀란(이탈리아)-샬케 04(독일) ▲7일 오전 3시45분 첼시-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상 잉글랜드) FC바르셀로나(스페인)-사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 /연합뉴스

광주FC 이승기 연패 탈출 해결사 될까

연패의 늪에 빠진 광주 FC가 분위기 반전을 노리며 부산 원정길에 올랐다. 광주 FC가 6일 오후 7시30분 부산원정 경기장에서 부산 아이파크와 2011 리그컵 2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지난달 5일 홈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 승리 이후 승진보를 올리지 못하며 리그컵 포함 4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광주는 부산과의 경기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는 각오다.

전망은 나쁘지 않다. 선수단은 앞선 정규리그에서 수완·포항 등 강팀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쳐왔고 이번 2라운드 경기에는 전력도 보장된다.

부상으로 재활을 하였던 미드필더 이승기가 부산전을 통해 프로무대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중원을 책임질 '핵심전력'으로 평가받았던 이승기는 시즌 개막전 상무와의 연습경기에서 원발목을 다치며 데뷔가 미뤄져 왔었다.

양병 주앙 파울로도 투입돼 부산 골문을

광주출신 이춘헌 근대5종 태극마크

대한근대5종연맹은 다음 달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예선전에 파견할 국가대표를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3일간 국군체육부대에서 실시한 선발전에서 김정섭(상무)이 총 5664점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정진화(한국체대)와 홍진우(경기도청), 남봉훈

(토지주택공사)이 성적순으로 뽑혔다. 배태랑 이춘헌(토지주택공사)은 시니어 대표로 선발된 8위에 머물렀으나, 감독 추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이춘헌 외에 선발전에 참여한 남자 대표는 지난해 광주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이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속박시설/상가				김현승이사 010-8033-0114				공정/토지				정이사 010-5879-0005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상동	4801.2174	15942	10992	아파트	상동	4801.2174	15942	10992	4층구입	상동	4801.2174	15942	10992	4층구입	상동	4801.2174	15942	10992	4층구입	상동	4801.2174	15942	10992	4층구입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블로터 그랜드 호텔

- ▶ 대지 683평
- ▶ 건물 2148평(지하2층 지상10층)
- ▶ 감정가액 80억원
- ▶ 매매가액 45억원(협의후결정)

광주유동화 하미스포텍스

- ▶ 대지 4073평
- ▶ 건물 12943평(지하3층 지상12층)
- ▶ 감정가액 516억원
- ▶ 매매가액 160억원(시버매각 협의후결정)

남원공장

- ▶ 대지 2460평
- ▶ 건물 1013평
- ▶ 감정가액 21억원
- ▶ 매매가액 12억원(협의후결정)

군산시 바이오 디젤공장

- ▶ 대지 10000평
- ▶ 건물 1976평
- ▶ 감정가액 99944천
- ▶ 매매가액 55억원(협의후결정)

해남 땅골공단

- ▶ 대지 2284평
- ▶ 건물 2654평(지하1층 지상5층)
- ▶ 감정가액 83억원
- ▶ 매매가액 35억원(협의후결정)

전주 노송병원

- ▶ 대지 548평
- ▶ 건물 2209평
- ▶ 감정가액 75억원(지하3층 지상5층)
- ▶ 매매가액 40억원(협의후결정)

유동화 자산매각은 유동화회사 유일부동산
이나 경제전문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전문상담 ☎ 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지정) 광산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 계획관리지역(물류창고, 공장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 계획관리지역(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동성자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9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원
- ▶ 준주거지역(병원, 사옥,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소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 풍양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만원 월810만원 매매가13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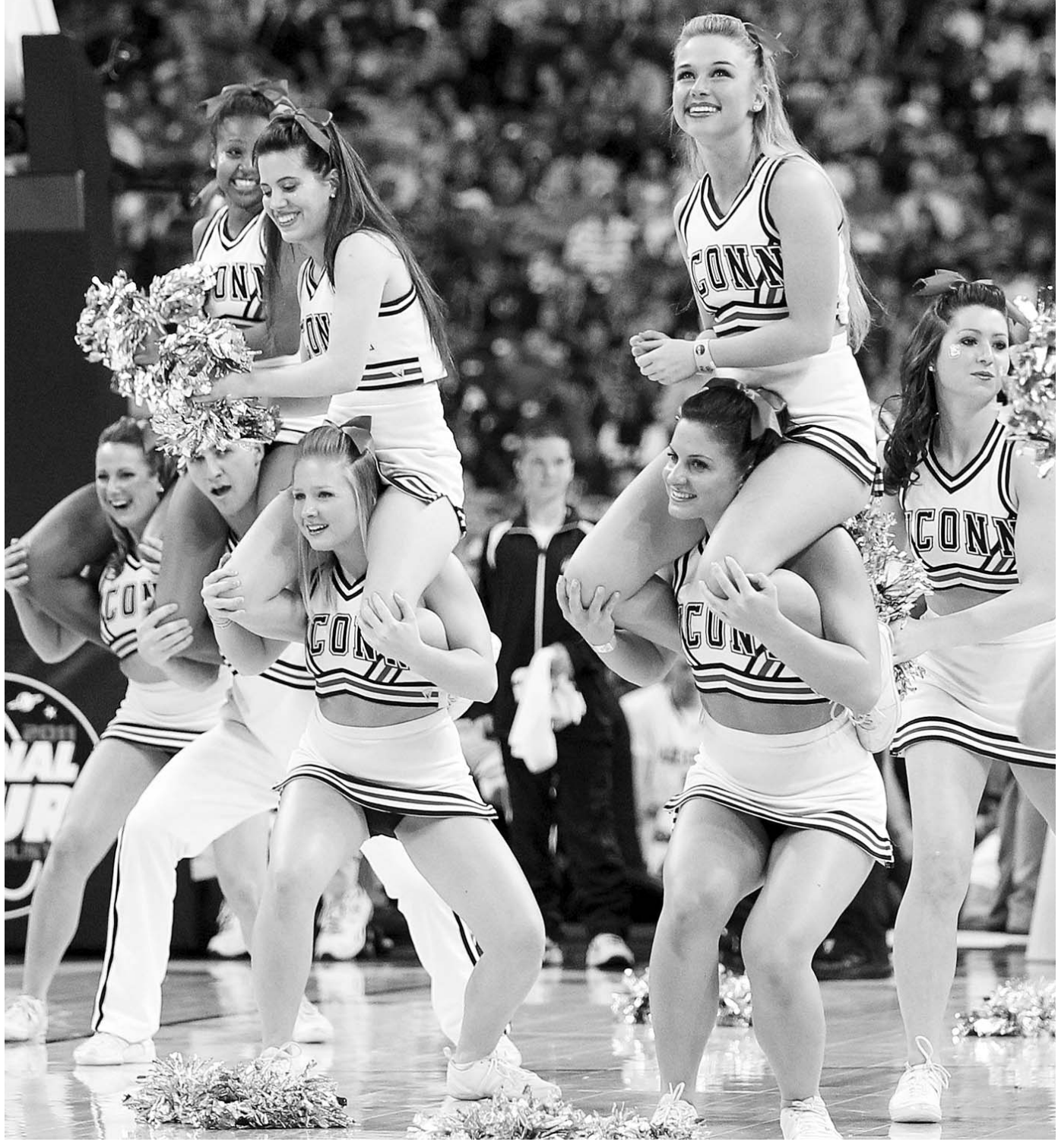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월400만원 매매가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8억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원 공원사거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미국 코네티컷대의 치어리더들이 5일 텍사스주 휴스턴 릴라이언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대학스포츠(NCAA) 남자농구 디비전1 64강 토너먼트 버틀러대와의 결승전에서 화려한 율동으로 응원하고 있다. 코네티컷대가 버틀러대를 53-41로 제압하고 우승 했다. /연합뉴스

미녀들의 우승 기원

바둑계에서 '센돌 천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원은 4월의 프로기사 랭킹에서 '센돌' 이세돌이 1위에 올라 작년 3월 이후 14개월째 수위를 지켰다고 5일 밝혔다.

원익매 십단전에서 전영규 5단, 이영구 8단을 연파하며 결승에 올라 강유택 4단을 제압했다.

또 비씨카드매에서 박승화 4단을 누르고 8강에 진출해 대회 2연패에 청신호를 켜다.

3개월 연속 랭킹포인트를 끌어올려 총 9859점을 쌓은 이세돌은 2위인 최철한과의 점수 차를 162점으로 벌었다. 이세돌은 2005년 8월부터 총 69차례 발표된 프로기사 랭킹에서 개인통산으로 45회나 수위에 올랐고, 이는 22차례의 이창호를 크게 앞지른 최

기기록이다. 나머지 2차례 1위는 최철한 9단이 차지했다.

2월까지 14승4패로 이세돌을 위협하던 최철한은 3월 들어 2승2패를 기록해 기세가 한풀 꺾였다. 6승3패의 박정환 9단은 석 달 연속으로 3위에 올랐고, 4위는 허영호 8단이 차지했다.

9위까지 추락하며 체면을 구긴 이창호는 한 차례 상승한 8위에 랭크됐다.

여자 부문에선 루이니아웨이 9단이 전체 68위에 올라 6개월째 1위를 지켰고, 박지은 9단(71위)과 조혜연 9단(81위)이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신선우 SK감독 사임
감독 대행에 문경은

프로농구 서울 SK를 이끌어왔던 신선우(56)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SK는 5일 신선우 감독이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수용했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 SK 사령탑으로 2년6개월을 맡았던 SK 감독은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뒀지만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자 사임을 택했다.

SK는 2군 코치로 활동해온 문경은(40) 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전희철(38) 운영팀장을 코치로 임명했다.

문 감독대행은 광신고와 연세대를 나왔고 연세대 재학 시절 이상민, 우지원, 서장훈과 대학원 최초로 농구대잔치 우승을 일궈낸 스타플레이어였다. /연합뉴스